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8차	일자	2021.07.05. 18:30	장소	203관 512호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0	0	X	0	0	0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0	0	0	0	0	0	11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
사회과학대학	'종강 후 현생탈출'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 완료.
약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예술대학	강사 수업 미업로드 진행문제로 TF 구성.
의과대학	-
인문대학	임시 입학대회 완료. 강의요구안 사업 진행 완료. 6월 소통부스 진행 완료. 릴레이 대자보 게시 중.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2학기 공학학술제 개선안 관련하여 설문조사 7/6~8 진행 예정. 통일공대 굿즈 7/7 발송 예정.
동아리연합회	전동대회 완료. 방학 내로 동아리방 인테리어 공모전 실시 예정.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2.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2분기 간담회 간담회 진행 완료
(연대사업국) 외부 제휴 사업 진행 중

산하위원회
(문화위원회) 가을 축제기획단 선발 완료
(인권복지위원회) 도서관 사물함 철거 진행 완료

3 의결안건

안 건 명

2021년 새내기새로배움터의 대면 숙박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

총: 일전에 진행된 회의에서 사전 공지한 바 있다. 2021년도 새내기새로배움터의 대면 숙박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결인데 확실히 문서화하기 해서 새터 대체 행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의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바로 의결 진행해도 괜찮은지?

간호.정: 네

[의결결과 : 참석 11 찬성 11 반대 0 기권 0 : 가결]

총: 지금 각 단운위에서 새터 대체행사에 대해서 논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후에 해서 대체 행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해보겠다. 그전까지 단운위 의견 수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4 논의안건

1. 장학제도 개정 중앙운영위원회 의견서 검토

- 의견서 검토 및 확정

총: 약 1시간 전에 부총학생회장께서 공지방에 의견서 가안 올려드렸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피드백 받고 확정 짓도록 하겠다. 정독시간 2분 갖도록 하겠다. 피드백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피드백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단위 말씀하시고 말씀해주시면 된다.

총: 없으면 없다고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없다.

경경.정: 경경대 없다.

동연.정: 동연 없다.

(이하 동일)

예술.정: 예술대학 오타자 혹시 지금 말해도 되는지?

총: 네

예술.정: 2번에 다섯째 줄에 '성적장학금 수혜에 매진 할수밖에 없는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없기 때문에' 아닐까

부총: 네 수정하도록 하겠다.

예술.정: 네 감사합니다. 다른건 이상 없다.

약학.정: 약학대학 4번에 네 번째 줄에도 '만연해있습니다.' 띄어쓰기...

부총: 네 알겠다.

통공.부: 공대도 추가의견 없다.

총: 네. 사과대 의견 있으신지?

사과.정: 없다.

총: 네. 두 가지 피드백 주셨는데 '없는'을 '없기'로 표기를 수정을 하자 그리고 '만연해있습니다'를 띄어쓰기 수정을 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고 바로 수정을 해서 내일 중으로 의견서 학교본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 있는데 혹시 이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 답변 같은 것도 받는 것인지?

총: 네 답변 달라고도 하겠다.

부총: 초기에 답변을 전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자고 한건 아니었다.

인문.정: 그건 알고 있었는데 혹시 학교 측에 답변이라든지 학교 측의 장학제도에 관련된 지난번에 총장단이 재고를 해본다고 얘기를 하셨다 물론 구두였지만. 혹시 그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교 측 의견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총: 그러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저희 중운위 의견서에 대한 총장단의 입장이랄까 대학본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공문에 함께 첨부해서 발행하도록 하겠다.

2. 재정정보 결의안 후속대처

- 본부 측 회신 검토
- 대책 논의

총: 일전에 제가 예산팀으로부터 전달 받은 답변서를 중운위 공지방에 공유해드린 바가 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게시글을 통해 수합한 바 있는데 아직 의견을 내주시지 않은 단위가 많기 때문에 이번 회의의 자리를 빌려 의견을 내주시사 한다. 우선 의견을 내주시지 않은 단위부터 의견을 듣고 저희 후속 대처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인문대학, 간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에서는 의견 내주셨고 나머지 단위에서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 말씀드리겠다. 결의안 읽어봤으나 해당 내용 너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어 재회신 요청드려야할 것 같다.

약학.정: 약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이랑 의견 동일하다.

자연.비: 자연대도 추가의견 없고 더 넓은 단위로 의견 정리됐으면 좋겠다.

동연.부: 동연도 추가의견 없다.

총: 네.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려도 되는지?

간호.정: 네

총: 우리 대표자분들이 내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우선 저희가 대자보를 쓰기로 했었다 미회

신 대응책으로. 대자보라는 안을 강구한 바가 있는데 우선 대자보를 근시일내로 작성을 하고 기획처로 한 번 더 항의방문을 하자. 그리고 저희가 학교본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와 저희가 작성한 대자보를 토대로 카드뉴스를 발행하는것이 어떨까 싶은데 대표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대자보를 내일 중으로 작성을 하고 그 수요일쯤에 기획처에 항의 방문을 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카드뉴스를 발행을 하자 라는 얘기였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 내용 동의한다.

경경.부: 그럼 카드뉴스 발행은 이번 주 안으로 되는지?

총: 이번 주 안으로 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

약학.정: 약학대학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학 동의하긴 하는데 기획처로 또 항의 방문 가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서 기획처 항의 방문보다는 그때 중운위에서 잠깐 나왔던 차라리 총장단을 찾아가는 게 효율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뉴스 발행도 동의를 하는데 카드뉴스 발행의 경우에는 그 학교측에서 온 답변 원문도 함께 워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서 링크를 게시하던지 이런 방식도 이뤄졌으면 좋겠다.

통공.정: 공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항의 방문 시에 그냥 자세히 써 달라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왜 미비한지 저희가 작성을 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냥 가서 자세하게 써 달라 하면 계속 도돌이표일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다섯 개의 질문 중에 이해가 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냥 더 자세히 써 달라 라는 것 보다는 몇 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왜 우리가 느끼기에 왜 미비한지에 대해 조금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총: 그 내용 또한 대자보에 포함을 시키고 말씀해주신 대로 항의 방문 시에 저희 중운위 차원에서 구두로도 한 번 더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하는 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공대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통공.정: 갔다 와서 자보를 쓰신다는 거 아닌지?

총: 아니다. 대자보를 가지고 항의 방문을 하는 것이다.

통공.정: 그럼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혹시 근데 그 대자보 내용에 3,4번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지?

총: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대자보를 쓰게 될 때 어떠한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는지 일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확정이 되면 대자보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하려고 했다.

통공.정: 네 알겠다.

간호.정: 간호대 질의 있다. 자보가 그러면 오프라인으로도 공유가 전교에 되는 것 인지?

총: 네 오프라인으로 부착 예정이다.

간호.정: 간호대 총학생회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

인문.정: 그리고 한 가지 계속 학교 측에서 답변을 안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때 간담회를 가졌을 때 학교본부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분명히 재정 부족의 이유와 등록금 산정의 이유를 학교 학우분들 전체 대상으로 설명하는 걸 고려한다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도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저희 학우 분들이 궁금한 건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사실 중앙대학교가 왜 돈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1%밖에 반환받았는지를 직접 학교로부터 설명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공문이나 간담회에서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본부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양만 제시 하는게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

총: 우선 중운위 차원에서 행동 프로세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대자보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첫 번째로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간담회 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왜 그 내용이 우리가 전달받은 답변서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대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걸로 답변서가 왜 미비한 답변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하나씩 집자고 말씀해주셨다.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학 질의 있는데 1번 방금 말씀하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걸 밝힌다고 했는지?

총: 그 당시에 등록금 환불이 왜 1%였는지에 대해서 밝힌 의사가 있다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

인문.정: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었고 왜 재정을 부족한지랑 1% 산정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고려를 해보겠다고 분명히 행정부총장님께서 대답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한 것이다.

총: 당장 생각이 안 나시면 게시글로도 한 번 더 수합하도록 하겠다.

간호.정: 간호대 질의 있다. 내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마감은 언제까지인지?

총: 저희가 작성 하는대로 하는 것인데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신지?

간호.정: 아니 게시글을 수합하겠다는...

총: 아 대자보 내용에 대해서인지?

간호.정: 네

총: 내일 오전 중으로 기한을 잡도록 하겠다.

사과.정: 저희가 왜 기획처가 사실 지금 받은 기획처의 회신이 간담회에서 요약하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는 지난번 저희가 기획처에 항의 방문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기획처는 학생들이 계속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기획처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게시글을 통해서 대자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수합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공대 학생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미비한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각 항목별로 미비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기획처에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미비

한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총: 사과대 회장님께서 요청해주신 대로 1번 답변, 2번 답변, 3번 답변, 4번 답변, 5번 답변 세부 질문화 해서 미비사유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1번 질문에 대한 미비사유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네 우선 1번 질문은 '본부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추정결산과 임의장학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라는 질문이었다.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의견 없으시면 의견 없다 라고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공.정: 공대 의견 없다.

예술.정: 예술대학 의견 없다.

자연.비: 자연대 의견 없다.

(이하 동일)

총: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일단 저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봤다. 첫 번째로는 답변이 미비한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라는 대표 의결기구의 힘을 빌려서 해당 사안을 다루었는데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는 거 자체도 중운위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 저희는 적어도 전학대회의 대표성과 당위성을 우리 학우분들께 그리고 대표자분들께 좀 이해와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구체화된 자료를 받아내야 되고 학교 본부의 답변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부총: 저도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일단은 1,2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지 중운위에 좌표를 찍어달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역 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나 설명의 방법이 잘못되었다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저는 그것보다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학교 측 답변을 보면 관련 법률의 내용을 들어서 그 세부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혹은 학생들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같은 법에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법률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는 정보 공개를 의무로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이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학교랑 협의를 하는 거라고 하면 해당 법률을 좀 보고 저희가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구축을 해서 입장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간호.정: 간호대 아까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게시판에 의견 드린 것처럼 이거는 결의안에 대해서 학교본부가 보여주는 태도와 똑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전체학생 대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해보겠다 아니면 또한 학생대표자에게 얘기했으면 다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 부분을 계속 더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총: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계속해서 같은 답변이 오고 있는 것은 제가 너무 질문에만 몰두한 것이 아닐까. 너무 좁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저희가 이제 가져가야 할 큰 골자는 이 모든 것들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희가 단순 답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개를 하게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발행할 대자보에서는 이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하라 라는 내용을 큰 골자로 발행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세부 의견들은 모든 대

표자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든다.

간호.정: 정보차원에서 미비한 게 없으면 게시판으로 의견 수렴해도 되지 않는지?

총: 사과대 회장님께서 뭐 의견을 좀 내주시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사과.정: 직접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대자보에는 직접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린다. 자료가 어디에 있다고 학교가 직접 설명을 한다든지 이정도로는 미비하겠지만 홈페이지에 어떻게 설명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 포함되면 괜찮을 것 같다.

총: 그리고 저는 5번 그 학생처로 책임을 이관한 것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등록금 환불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처는 계속해서 학생처로 좀 공을 돌리고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다.

간호.정: 좋은 것 같다.

통공.정: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직접 설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직접 설명하는 방식도 학교가 알아서 하는 건지? 저는 계속 헛갈리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직접 설명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건 뭐 포탈 공지사항 같은거에 이런걸 정리해서 올리 는거 정도? 그거 말고는 저는 생각 나는 게 없다. 어떻게 직접 설명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총: 우선 설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모든 학우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적어도 기획처장의 이름으로 된 서신 그 이상 그 급의 이상으로는 공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총장의 서신이라든지, 기획처장의 서신이라든지 무조건 그 주무부서 장의 이름을 걸고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 설명의 근거가 되는 그 자료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다.

경경.정: 경경대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자면 지금 학우분들께서 접하시는 이 문제에 대한 정보들은 거의 다 저희측에서 발행하는 카드뉴스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본부가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은 전 동의를 못하겠고 만약에 학교본부가 이걸 학우분들께 보여준다면 학교본부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만들고 저희한테 공유를 부탁드린다고든 그렇게 학교본부 명의로 된 카드뉴스라든지 학교본부 명의로 된 문서를 저희한테 공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한테 그것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자꾸 학교본부 측에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다.

총: 네 저희가 가공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술.정: 저는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반 학우분들한테 전달이 될 때 저희가 등록금 환불에서 아무리 자료를 봐도 임의장학기금 이랑 특정목적기금, 적립금 이런 거에서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이다. 다른 재정 지표를 봤을 때에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거를 풀어서 좀 학교 측에서 자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이런거를 우리가 잘못해서 못 넘겼다 그러니까 미리 좀 할 수도 있었던 거고 적립금 있는데 우리가 못 쓴다 이런거를 학교에서 좀 학교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잘못했다고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못 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설명이 있어야할 것 같다. 그래야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어려운데 일반 학우분들이 자료만 봤을 때에는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해당 문서를 대표자들한테 보내서 닿을 것 같으면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이 문서를 보여주면 절대 일반 학우분들께서는 알아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서 문서화해서 라도 답

변을 받으면 그걸 공유할 수 있으니까 설명하는 것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총장 서신같은 경우에는 메일로도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식의 학교의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총: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대자보의 큰 골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를 하라 가 되는 것이고 공개를 할 때 그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첨부자료가 필요하다. 그 첨부자료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본부의 입장과 의견을 기획처장급 이상의 등급의 서신이 발행되어야 한다. 이정도로 정리가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빼 먹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당장 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내일 정오까지 게시글 통해서 추가의견 받겠다. 논의안건 3번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3. 등록금환불 사전조사

총: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제가 6시 20분쯤에 공문 최종본을 올려드렸다. 이견 없으시면 내일 오전중으로 발행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혹시 공문 회신일자가?

총: 공문 회신 일자도 넣을까요?

인문.정: 네

총: 네

인문.정: 학교측에서 그때까지 답변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총: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보면 되는지?

인문.정: 논의하면 되지 않는지?

총: 네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지? 이번주 금요일?

사과.정: 사과대 이번주 금요일에 의견 낸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5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위요구안 작성 현황 공유

총: 양식과 제출기한은 제가 내일까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식은 1학기 때 배포해드린 양식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혹시 제가 세부적으로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경해서 내일 중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 있는데, 원래 2학기 단위요구안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있는지?

총: 작년에만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위요구안에 대한 답변은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받고, 그 리더스포럼 형식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인 학생지원팀과 계속해서 상의하고 있다.

인문.정: 그래서 기타 안건으로 리포 때 진행 방식 논의해보라고 하셔서 그건 언제 논의하는지?

총: 리포를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이라고 하면 지난 1학기과 동일하게 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데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통공.정: 아까 타이밍을 놓쳤는데 공문 회신기간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약속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금요일 말하면 월요일에 줄 것 같다. 그러면 월요일 회의할 때 또 딜레이 되고 할 것 같아서 목요일까지 달라고 해야 금요일에 주고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회의가 될 것 같다.

총: 그러면 목요일로 하겠다. 저희는 상관이 없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단위요구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 단과대와 의견을 논의를 하고 싶거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알아서 잘 하실 것 같다. 두 번째로 선거 및 홍보물 내규 관련해서 개정안 의견을 수합한 바 있는데 내일 중으로 공문 발행하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딜레이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드린다. 세 번째로 이번 주 목요일에 학사정기협의체가 소집이 된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간호대학 학생회장님만 희망하시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추가 희망사항 없으시면 간호대학 학생회장님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사운영 방식에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답자가 약 3000명 정도로 확인되었다. 응답의 양상을 보니 전면 비대면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약 50%이고 나머지 일부 대면이라도 원하는 분들이 50%이다. 50%내에서도 전면 대면이 약 20%, 일부 대면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대면을 하자는 분들이 반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통공.정: 학년 별로 나눠야 하지 않느냐?

총: 학년별로 나눠야 될 것 같다.

통공.정: 제 생각엔 4학년은 비대면이 많을 것 같고 1학년 2학년이 그나마 대면을 했을 것 같고, 3학년은 비대면을 했을 것 같아서..

총: 사실 저희가 7월 6일 오후 6시까지 설문조사 기한을 설정했고 3000개의 응답을 정리하기에는 빠듯할 것 같다. 임시회의를 소집해도 7일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국에서 열심히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정: 그때 밤새면서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시지 않았나요?

총: 6일 6시 이후로 저희가 교육국과 함께 정리할 것이다. 밤새서 하겠다.

간호.정: 질의 있다. 지난 교무위원회에서 들으신 바...

총: 지난 교무위원회에서 매뉴얼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구축을 못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 타 대학 사례를 조사해보았는데, 학교본부에서, 다른 학교와 저희 학교와 교육환경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에 여유를 두고 하자고 해서, 내일 교무위원회로 안건이 이관된 것으로 안다. 또 학생들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논의된 게 없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간호.정: 그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인문.정: 근데 궁금한 것이, 학교가 대면 의지는 있는 것이잖아요.

총: 아니요. 강력 의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하고 싶다는 것이다. 학생을 좀 명분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다. 학교본부도 전면 대면이나 일부 대면을 하고자 하는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쪽으로도 생각하는 것 같다. 학교본부는 대면을 하던지 비대면을 하던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똑같다고 하니, 똑 같으면 대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학교본부의 입장인 것 같다.

경경.정: 근데 이걸 돈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총: 그렇다. 같은 돈으로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주고 싶은 학교본부의 생각도 있는데, 그건 학교본부의 생각 일 뿐이고 저희는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학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정: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면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리해서 들고 가봤자 준비된 게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봤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괜히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갔다가 명분만 삼을까봐 걱정이 된다.

경경.정: 근데 이게 대면 체크에서도 실험/실습이 있기 때문에 50%가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총: 일부 대면에 제가 넣었습니다.

경경.정: 그래서 그게 학교 측의 명분이 될지는 아직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부총: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리해서 정리해 가야한다. 그 다음에 대면 원하는 입장에서도 방금 두 분 말씀처럼 현행과 똑같은 대면 시스템도 항목에 있기 때문에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학교본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

총: 지금까지 학교본부의 행동 양상을 보면 절대 대면을 밀고 갈 거 같진 않다.

경경.정: 추가적 의견 말씀드리면, 대면이던 비대면이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언제 이걸 결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중간고사 이후로 결정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이번에 7,8월 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끌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인문.정: 어쨌든 저희는 설문조사 결과를 6일 이후에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경경대 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전면대면을 하냐?' 아니면 '일부 대면을 하냐?'가 아니라 이게 과연 언제 공지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게 거주지와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가 설문조사 결과 전후던 어찌 되었든 대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있던 없던 간에 저는 매뉴얼을 확실히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본 후에 논의를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총: 네 알겠습니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다. 설문조사 종료되고 나서 분석하시기 전에 로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네. 그렇게 할 예정이었다. 원본을 빨리 드려야 할 것 같다.

사과.정: 기타안건 다른 내용 말해도 되나요?

총: 네.

사과.정: 6월 17일에 회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중앙감사위원회에서 회칙 상 추가모집이 어려운 점이랑 3인의 인원으로 전체 단과대 및 학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6월 중강 직후에 진행되는 하반기 정기 감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중앙감사위원장께서 주셨고, 중감위 내부 의결을 통해서 2021년 하반기 정기 감사 진행 불가능에 대한 중운위 내부 의견 발의 건이 가결되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관련 의결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다음 주에 진행해야하지 않을까요?

총: 중앙감사위원장을 모셔서 진행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저희가 글로 받았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감위원장님을 모셔서 배경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저도 전달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입장을 알지 못한다.

사과.정: 하반기가 이미 시작되어서 감사를 안 한다면 빠르게 의결 진행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과학대학 전학대회 의결산출과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전학대회 의결산출과정 문제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운위 논의안건으로 상정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제가 간담회 전 과정을 열람하진 못했지만,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기록되어있어 해당 방송을 보았는데, 전학대회 의결산출과정 관련해서 총학생회장단 보고에서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학대회 의결산출과정에서 무효표를 계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찬성/반대/기권 그리고 무효표를 계산해서 세부 명수와 실제 투표 인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간담회에서 이 점을 총학생회장단이 인정을 하셨고 이 점에 대해서 간담회 내부에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의결이 단순히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학대회는 각 학과/부를 대표하는 작게는 50 많게는 150명이 넘는 학우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과 단과대 대표자들이 1년에 딱 두 번 전학대회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의결 결과가 아니라 의결 자체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이 대표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의결 산출을 해서 결과를 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는 중운위에서 다음 주에 논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이 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위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미리 말씀드린다.

총: 전학대회 의결 산출 과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간담회 사전 질의로 들어온 바가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답변을 참고해서 다음 주 회의를 참석하시면 될 것 같다.

부총: 일단 간담회 해당 사전 질문을 수합 받은 이후에 간담회 전까지 내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해서 현재까지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까지 간담회에서 설명과 함께 사과드렸고, 다음 주 중운위 논의안건으로 상정하셨으니까 저희도 그 전까지 내부에서 상황을 깊게 알아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사과.정: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한 것과 다르게 의결이 산출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간담회에서의 사과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논의해보았으

면 좋겠다.

부총: 저희도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과.정: 네 알겠습니다.

총: 네 추가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추가의견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술.정: 예술대학 아까 보고사항에서 감사 관련 문제, 수업 미업로드나 재사용을 한다던지 그럼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다른 단위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해결하신 사례가 있다면 저에게 따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TF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추가의견 없으신 것으로 하고 중운위 28차 회의는 폐회하도록 하겠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